

古代 로마 신화에 등장한 神들의 服飾 研究

임 상 임 · 추 미 경*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ostume of the Gods in the Ancient Roman Myths

Im Sang-Im · Chu Mi-Kyung*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2001. 1. 11 접수)

Abstract

The costume for gods in the Ancient Roman myth was studied by examining in the embossed-carving, sculptures, mural-painting and various documents of the period. The clothes item, hairstyle, symbol & ornaments and shoes of the gods in the Roman myth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formative process in the religious costume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umes for male gods are the same as those for ordinary men lived in ages, including toga, paludamentum, tebenna, tunica. The costumes for female gods are also the same as those for ordinary women lived in ages, including stola, palla, tunica. Second, the hairstyle of male gods is short curled-hair, twisty roll-up hair and braid long-hair due to the influence of Etrurian in the early days. Another hairstyle is appeared in form of the laurelled-crown. The hairstyle of female gods is curled long-hair, chignon style and braid roll-up hair decorated with hairband. Third, the symbol & ornaments which represent the responsible possession of male gods, are appeared in beard, a stick of the message, arrow-case, offering-dish, antlered-glass, shield, spear-handle, as the superhuman forms, such as the lightning shape. For female gods they are is appeared plastron, a stick of the message, flower. some female gods wear necklace, foot-ring, bracelet. Fourth, male gods wear shoes in forms of sandal, buskin, boots, but all female gods are in barefoot. It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a man-centered society in the ancient roman is reflected in the world of gods. As mentioned, Gods' costume in Roman myths was very similar to or nothing different from the ordinary people's in Rome. However, they used corps, sacrifices or sepcific symbols depending on the fields that they were responsible for in order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ordinary people. This is the result from the people's expression that they should keep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s hoping to be protected, and rely on them under whatever circumstances

Key words: Roman myths, male god, female god; 로마신화, 남신, 여신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I. 서론

유럽의 대표적인 신화라 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神話)는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문화 유산 중의 일부분으로써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심리적 필요에 부응하여 나타났다. 특히 로마신화는 허구가 아닌 로마인들의 역사를 제시²⁾하고 있으며 전설로서만 끝나지 않고 신을 인간화하고 시각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즉 로마인들은 현세적인 자연이나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숭배하여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영혼들에게 보호와 은총을 받으려는 믿음으로 신앙의식을 가졌으며, 이러한 로마인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신(神)에 대한 종교관념은 그들의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 신들의 복식에 관한 연구로써, 로마신화에 등장한 신(神)들의 복식을 분석·고찰하여, 로마 신(神)에 관한 복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은 물론 고대 종교복식의 형성과정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선행 문헌자료와 고대 로마 신들이 표현된 부조, 조각상, 벽화 등의 그림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먼저 로마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대 로마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종교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의 복식을 남·녀 신으로 세분하여 각 신들이 착용한 대표적인 의복의 종류, 머리형태, 상징물 및 장신구, 신발 등의 내용을 분석·논의한 후, 일반 로마인의 복식과 신의 복식을 비교·고찰하여 표로써 제시하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고대 로마나 주요 대도시 등에서 치러졌던 유명한 종교 의례조차도 실제기록에는 지극히 단편적인 방식으로 서술됨에 따라 특히 제사의 흔적이거나 사제의 형상은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로마 신화에서의 주요 신(神)들의 복식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복식연구의 자료는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대표적인 그림에서만 고찰하였으며, 복식의 재질이나 색상은 문헌 자료상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었음을 제한점으로 둔다.

II. 로마 신화(神話)

일반적으로 신화란 신(神)에 관한 신성(神聖)에 대한 이야기로 종교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신성성, 신비성, 초자연성, 상징성 등과도 결부되기에 곧 종교적 상관물(相關物)³⁾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신화는 로마인이 그리스 신화를 본보기로 고전승(古傳承)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써⁴⁾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인의 초기 역사를 제시한 것이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상황을 상징적인 다양한 신(神)의 이야기로 꾸며 압축해 놓은 것이다. 고대 로마는 다신교체제로, 신의 계시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권위 있는 종교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로마 신화에서 각 신(神)들의 입장과 영웅들의 삶 관계를 통해 로마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자연의 법칙성이나 적법성 등을 암시하였기에 이는 곧 로마 자연종교의 본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마 신화에 나타난 다양한 신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로마 전통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귀족 가문의 모험 이야기 등을 제시⁵⁾ 하였는데, 이는 곧 로마인의 마음과 행동양식을 서로 다른 특성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에 대한 종교적 관념을 지닐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로마인은 신에 대한 적절한 의례를 실천하고 시민적인 미덕을 고무하여 신의 은총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각 공동체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와 신을 섬기고 있었다. 즉 로마나 라틴 도시들은 반드시 카피톨리움⁶⁾의 3신, 유피테르

1) http://user.chollian.net/~ufo_17/homepage/s.../A.ht

2) Jane F. Gardner, Roman Myths, 이경희 편역, 로마 신화, 범우사, 13, 1993.

3) <http://home.hanmir.com/~ouroboros/>

4) <http://kr.encycl.yahoo.com>

5) John F. Noss, 율이훙 역, 전계서, 177.

6) 카피톨리움(capitolium): 옛로마의 7언덕중의 하나로 Jupiter의 신전이 있는 언덕의 이름.

<표 1> 로마의男神

수	신의 이름	별칭	책임영역	다른 신과의 관계	특징 및 상징성
1	유피테르(Jupiter)	요브, 토난스, 풀굴, 임페라토르, 인빅투스, 트리움파토르	인도-유럽의천공의 神 神들의 王	유노의 남편	유노, 미네르바와 삼위일체, 우레, 번개, 홀(scepter)
2	아폴로(Apollo)	포에부스	예고, 예언, 공술 및 예술의 神, 의학의 神, 가족의 神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	활
3	큐피드(Cupid)	아모르, 에로스	사랑의 神	아프로디테의 아들	창, 날개, 방패, 화살통
4	메르쿠리우스(Mercurius)	노미오스, 푸시코폼포스	상업·장사의 神, 도둑과 상인의 수호 神, 풍요와 다산의 神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인 마이아의 아들	깃털이 달린 샌들, 깃털이 달린 넓은 차양의 모자, 두 마리 뱀이 감겨 있는 전령의 지팡이인 케리케이온을 지님
5	마르스(Mars)	그라디우스, 마오르스	軍神, 전쟁의 神, 성장의 수호 神, 농업의 神	유노의 아들, 로물루스의 아버지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투구, 창, 방패
6	야누스(Janus)	야누아리우스	문의 수호神	카미세의 남편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한 얼굴
7	페나테스(Penates)	페누스	식품을 넣는 찬장의 神, 가족의 수호神	.	현주접시, 뿔잔
8	라르스(Lars)	라르	가정의 수호神, 자손을 감독·보호하는 神	.	현주접시, 뿔잔
9	아에네이아스(Aeneas)	아이네이스	로마의 창설자, 군神	베누스와 트로이의 자손인 카세스의 아들	창, 활
10	실바누스(Silvanus)	.	숲의 神, 삼림의 神	.	나뭇가지, 동물가죽

(Jupiter), 유노(Juno), 미네르바(Minerva)와 신격화된 황제 같은 로마의 수호신 등을 숭배하였고 갈리아에 있는 식민지 트리네르에서는 마르스(Mars)를 주신으로 모셨다. 또한 시리아에 있는 식민지에서는 큐피드(Cupid), 베누스(Venus), 메리쿠리우스(Mercurius)의 3신을 숭배하였고 판테온의 나머지 도시와 로마 각 가문(家門)에서는 저마다 여러 신(神)들을 자유롭게 모셨다.

이처럼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그리스 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 신에게 로마 신의 이름을 붙였고 유피테르(Jupiter)를 포함한 의인화된 다양한 신(神)들을 인간 공동체의 파트너로서 로마인들의 안녕을 위하여 각각의 책임영역에 따라 숭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대 로마인들이 로마 신화

(神話)속에 등장한 다양한 신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주요 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별칭이나 책임영역 그리고 다른 신들과의 관계 및 특징 등을 남·녀 신(男·女神)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표 1, 2>.

III. 고대 로마 신(神)의 복식 고찰

1. 로마 신의 복식

고대 로마인들은 현세적인 자연이나 그리스적 신화를 숭배하면서, 자연속에 존재하는 영혼들에 대한 규칙적인 봉납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관이었다. 그리하여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종교관념과 신에 대한 경배심은 의인화되어 신(神)들의 복식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로마 신화속에 등장하는 신(神)들의 복식을 선행 문헌자료와 부조, 조각상, 벽화 등의 유물에 나타난 그림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7) 판테온(Pantheon): 신들을 모신 신전을 가리키는 만신전(萬神殿).

<표 2> 로마의 女神

수	신의 이름	별칭	책임영역	다른 신과의 관계	특징 및 상징성
1	미네르바(Minerva)	·	수공예 女神, 가사의 女神, 지혜와 학문의 女神	·	투구, 방패, 갑옷
2	베누스(Venus)	비너스	경작, 정원의 女神, 사랑의 女神	아에네이아스의 어머니	창, 화살
3	디아나(Diana)	다이아나	숲의 女神, 야생동물의 수호 神, 여성의 수호 神	제우스와 레토의 딸, 아폴론의 상동인 누이	·
4	플로라(Flurola)	·	풍년, 꽃을 주재하는 女神	·	꽃
5	베스타(Vesta)	·	난로의 女神, 부뚜막의 女神, 국가의 수호 神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	주황색선호



[그림 1] 유피테르 神, 별거벗은 로마사, p. 99

남·녀 신(神)들이 착용한 대표적인 의복의 종류, 머리형태, 상징물 및 장신구, 신발 등을 분석·고찰하였다.

먼저 [그림 1]은 신들의 왕인 유피테르 신(神)의 모습으로, 로마의 대표적인 복식인 토가를 벗어 한쪽 어깨에 걸쳐 입었으며 오른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홀(scepter)을 들었고 왼손은 천공의 신답게 그의 상징물인 번개모양의 장신구를 하고 있다. 머리형태는 짧은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다.

로마인들에 있어서 유피테르 神은 하늘, 태양, 달, 번개 등과 동일시되어 가뭄 시에는 이 신전(神殿)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⁸⁾고 한다. 또한 열

8) Indro Montarelli, 박광순 역, 별거벗은 로마사, 풀빛, 101,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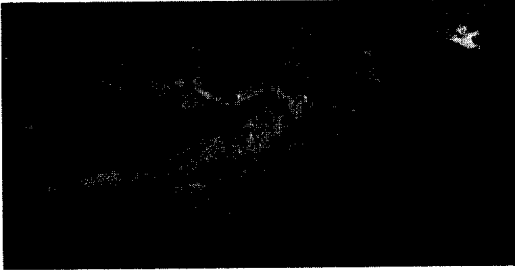


[그림 2] 아폴로 神, Roman Art, 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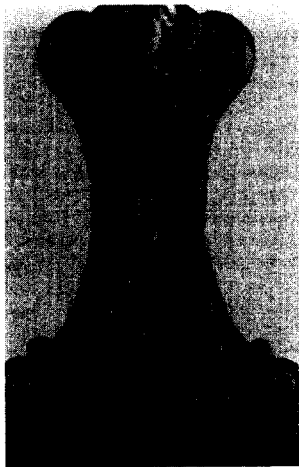
굴에는 일반 남성들과는 달리 수염을 길러 '우뢰의 신, 번개의 신, 전리품 쟁취자'⁹⁾ 등의 별칭답게 초인간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염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이나 왕이 길렀고 로마에서는 철학자나 성직자들이 길렀던 것으로 보면 고대사회에서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B.C. 500년경 로마의 베이(veii)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보존된 아폴로 상으로 이 신상(神像)은 종종 에트루리아 예술의 마지막 복식의 자료로 언급되는데, 무릎까지 오는 튜닉위에 타원형의 옷감 한끝을 왼쪽 어깨에 걸쳐 자연스럽게 늘어진 테베나(Tebenna)를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서 왼쪽 어깨 위로 둘러서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머리형태를

9) Indro Montarelli, 박광순 역, 전게서,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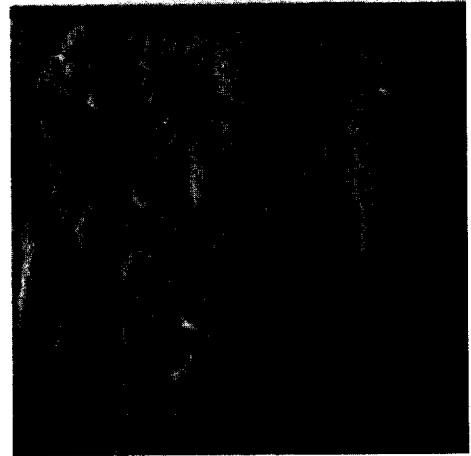
[그림 3 a] 베누스女神(中), 큐피드神(右), 폼페이 최후의 날, p. 128



[그림 3 b] 큐피드神(中), 세계신화사전, p. 259

보면 얼굴근처의 머리는 곱슬거리며 뒤에는 몇 개의 가닥으로 어깨너머까지 길게 뚫아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육체의 양감 및 걸음걸이 표현은 궁술 및 예술·의술의 신다운 모습이라 할 있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비교적 에트루리아인의 영향을 받은 로마 초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a]는 바다를 끼고 살았던 폼페이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베누스와 큐피드 신(神)의 모습이 있는 벽화이다. 여기에 나타난 큐피드는 아름답고 장난기 있는 미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벌거벗은 모습에 어깨에는 외투를 걸치고 양손에는 '욕망의 화살'¹⁰⁾을 채운 황금의 화살통을 들고 있다. 또한 [그림 3 b]



[그림 4] 아폴로神(左), 케르누스神(中), 메리큐리우스神(右), 로마제국, p. 32

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머리에는 페타소스(petatos)를 쓰고 한손에는 화살통을, 다른 한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인 베누스도 벌거벗은 모습이지만 당시의 장신구 유행에 영향을 받은 듯 미의 여신답게 목걸이, 팔찌, 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형태는 공화정시대에 유행하였던 머리전체를 곱슬하게 하여 뒤로 늘어뜨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4]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르큐리우스 신은 상인의 수호신이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의복은 어깨위로 팔루다멘툼을 걸어 헤친 모습이며 왼손에는 곡물의 일종을 들어 풍요의 신임을 상징하였고 오른손은 천령의 지팡이를 들어 올린 형상이다. 왼쪽에 있는 신은 아폴로 신의 모습으로 에트루리아인의 영향을 받은 로마 초기때의 [그림 2]에 나타난 의복과는 달리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 아폴로신과 메르큐리우스 두 신(神)의 머리형태는 곱슬머리로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중앙에 있는 케르누스 신은 켈트족 부(富)의 신으로서, 굽은 목걸이, 팔찌, 완찌를 하고 확인하지는 않지만 좌우신들과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에 팔루다멘툼을 걸쳐 입은 것 같다. 이 신의 무릎과 발 밑에 있는 곡물이나 가축은 풍작의 기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로마인들은 이민족의 신(神)을 관대히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

10) Ather Cotterell, A Dictionart of world Mythology, 세계신화사전, 까치, 258, 1995.



[그림 5] 마르스 神(上)·베누스 女神(下), 폼페이 최후의 날, p. 129

여 스스로를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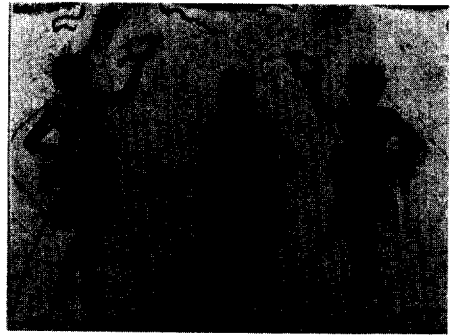
[그림 5]는 마르스 신(神)과 베누스 신(神)의 사랑을 표현한 폼페이 벽화이다. 여기서 마르스 신은 전쟁·군신(軍神)답게 군복의 일종인 사굽으로 보이는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양쪽에 깃털을 꽂은 투구를 썼으며 오른손에는 창을 잡고 용맹스런 전쟁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의자에 앉아 있는 베누스 신(神)은 [그림 3 a]에 나타난 나체의 모습과는 달리 긴 튜니카위에 가벼운 팔라로 보이는 외투를 걸치고 있다. 또한 머리는 가볍게 올려 당시 순결함을 상징 하였던 헤어 밴드¹¹⁾로 장식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은 서로 다른 곳을 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神)의 모습으로 짧은 머리를 가늘게 꼬아서 귀밑으로 내린 형태를 보여주며 머리위에는 월계관을 볼 수 있다. 이 신(神)의 신전은 전쟁시에는 열어두고 평화시는 닫아두었다가 군대가 출정할 때 이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두 개의 얼굴 형상처럼 들어가는 문에는 두 면(面)이 있어 성공과 실패라는 미래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상징하였다고 한다.

[그림 7 a]는 로마의 신전을 본뜬 작은 묘당 그림으로써 집안 장식에 이용되었던 벽화인데 좌우 각각 라르스 신과 페나테스 신이 중앙의 인물을 양옆



[그림 6] 야누스 神, 세계신화사전, p. 234



[그림 7 a] 라르스 神(左), 페나테스 神(右), 로마제국, p. 123

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¹²⁾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앙의 인물은 튜니카의 위에 자주색의 클라비(Clavi)를 맨 토가 프라에텍스타를 걸치고 있는 모습¹³⁾이다. 라르스 신과 페나테스 신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밑단까지 클라비로 장식한 튜니카 라티클라비(Tunica Laticlavi)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의복은 제정말기쯤, 착용자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입었던 것¹⁴⁾으로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중요한 위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팔리움 같은 사각의 천을 살짝 꼬아 어깨를 걸쳐 허리에서 맺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하 비율이 그리스 복식에 활용되었던 황금분할을 보는 듯하다. 또한 왼손에는 사슴 모양의 술잔을, 오른손에는 조그마한 술단지(카니쿠)를 들고 있으며 머리형태

12) Blanche Pague, 이종남 외 3인, 전계서, 47.

13)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119, 1973.

14) 백영자·유효순, 전계서, 93, 1989.

11) 정홍숙, 전계서, 97.



[그림 7 b] 라르스 神(上·下), 로마제국, p. 122

는 짧은 칼에 월계관으로 보이는 형태를 썼으며 신발은 바스킨(Buskin) 형태를 신고 있다. [그림 7 b·상]에서의 라르스 신(神)은 짧은 튜니카에 팔리움을 허리에서 살짝 꼬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는데 라르스신의 등과 가슴부위에서 우아하게 형성된 주름의 카울 네크라인과 허리 밑의 주름은 마치 그리스 의복을 보는 것 같다. 한편 [그림 7 b·하]의 라르스신은 주름이 거의 없는 튜니카에 팔리움을 꼬아서 허리벨트를 매고 다시 어깨 위로 넘어 가듯한 다른 의복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는 짧은 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라르스 신(神)은 각 가정의 수호신이자 자손의 보호신으로써 복식형태를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공통적으로 짧은 튜니카에 팔리움을 걸친 형태로 부드럽고 평화스런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 7 b·하]신의 모습처럼 거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머리형태로 남성적인 복식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라르스신이 남·녀 양면성을 지닌 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찬장(饗饗)의 신이자 가족의 수호신인 페나테스 신(神)의 모습은 [그림 7 a]에서처럼 [그림 8]에서도 의복은 튜니카 위에 팔리움의 사각의 천을 꼬아 허리에 벨트처럼 두르고 어깨에서 뒤에 까지 팔리움이 흘러내린 형상임을 볼 수 있다. 오른손에는 염소의 뿔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흰주접시를 들고 무릎 밑에까지 오는 하이부츠(high boots)



[그림 8] 페나테스 神, 로마신화, p. 162

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트로이아쪽의 용사이자 유명한 영웅인 아에네이아스 신(神)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조이다. 아에네이아스 신은 짧은 튜니카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장식판 등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길이가 허벅지 아래까지 오게 입은 것을 보아 그 당시의 사굴이나 라세르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머리형태는 짧은 칼로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10]은 숲과 삼림의 신인 실바누스 신(神)상으로 벌거벗은 모습에 동물가죽을 걸치고 왼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 그의 책임영역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수염을 풍성하게 길렀고 머리형태는 곱슬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신발은 끈으로 엮고 굽이 있으며 발가락이 보이는 바스킨을 신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삼림의 신처럼 야성스런 모습이다.

[그림 11]은 지혜와 학문의 보호신 이었던 미네르바 여신(女神)의 모습으로 의복은 이오닉 키톤과 도릭 키톤이 병합된 듯한 스톨라를 입고 있으며 가슴에는 월계수의 장식이 된 작은 흉갑을 장식하였고, 머리형태는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린 후 헤어밴드로 장식하였다. 이 여신은 가끔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투구와 갑옷 그리고 창·방패 등을 지녔다¹⁵⁾ 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인들이 신을 인격화하고

15) Jane F. Gardner, 이경희 역, 전제서, 163.

16) Jane F. Gardner, 이경희 역, 전제서, 22.



[그림 9] 아에네이아스 神, 로마신화, p. 1



[그림 11] 미네르바 女神, 벌거벗은 로마사, p. 102



[그림 10] 실바누스 神, 로마신화, p. 22



[그림 12 a] 디아나 女神, 그리스·로마 신화, p. 30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모습을 시각화시킨 가운데 국가의 수호신으로 여기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a]는 숲과 야생 동물의 수호신이자, 여성의 수호신인 디아나 여신(女神)으로 이 신의 의복은 인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다 보이는 얇은 스톨라를 입고 그 위에 팔라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앞가슴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 머리형태는 앞 가리마를 타서 곱슬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형태이다. [그림 12 b]에서의 디아나의 의복은 스톨라위에 팔라를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숲과

야생 동물의 수호신 담게 이 여신의 장신구에는 '활과 화살'¹⁸⁾ 등이 쥐어져 있다. 머리는 시농(Chignon)의 형태로 올린 형태이며 맨발의 모습이다.

[그림 13]은 풍년과 꽃의 신인 플로라 여신(女神)이 나타난 벽화로써 이 여신의 의복을 살펴보면 노랑색을 띤 긴 스톨라를 입고 그 위에 팔라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형태는 간단하게 땅아 올리고 헤어밴드로 마무리하였고, 한 손에는 팔찌로 장식하였으며 맨발의 형태임을 볼 수 있다.

17) John F. Noss, 윤이흠 역, 전계서,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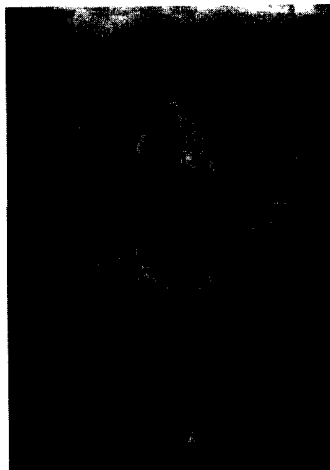
18) Robert E. Lemer 외 2인, WESTERN CIVILIZATION, W · W Norton & Co., N.Y · London, 19, 157.



[그림 12 b] 디아나 女神, WESTERN CIVILIZATIONS, p. 157



[그림 14] 베스타 女神, 복식과 패션, p. 42



[그림 13] 플로라 女神, 로마, p. 87

또한 국가의 수호신이자 부업·난로의 여신인 베스타 신(神)[그림 14]의 의복 또한 미네르바 여신의 의복처럼 그리스의 도라키톤과 이오닉 키톤이 약간 변형·발전된 스톨라를 입고 있다. 이 원피스 드레스는 이오닉 키톤의 소매처럼 어깨부터 솔기선을 따라 주름을 잡아 소매모양을 만들었고 피블라와 같은 안전핀으로 장식하였으며 한손에는 팔라를 걸치고 허리띠는 유방밑에 둘러쳤다. 머리는 층층이 롤(roll)을 쌓아 베일(veil)로 덮고 이마를 곱게 가리고 있는 형태인데, 이 베일의 색상은 베스타의 대표색인 주황색을 선호¹⁹⁾하였다고 하며 이 여신에게 허원(許願)한 처녀들은 장방형의 베일을 머리에 쓰고 앞

가슴에 베일의 귀퉁이를 매어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남신(男神)에 속하는 유피테르, 아폴로, 큐피디, 메리쿠리우스, 마르스, 야누스, 라르스, 페나테스, 아에네이아스, 실바누스와 여신(女神)에 속하는 미네르바, 베누스, 디아나, 플로라, 베스타 등의 복식을 살펴본 결과, 남신은 그들의 책임 영역을 나타내는 무기나 곡물 등을 손에 쥐고 일부 당시의 남자복식을 취하고 있지만 초인간인 형상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신은 남신과는 달리 비교적 인간의 얼굴 형상으로 그 당시의 여성복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요 남·녀 신(男·女神)의 복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4 참조>

2. 로마인의 복식과 신의 복식 비교

로마인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은 복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의 복식형태를 받아들여 로마의 특수한 시대 양상에 맞게 변화시켰다.

로마의 남자들은 내의로 튜니카를 입고 외의로는 토가를 입었으며 그 외에 팔리움, 팔루다멘툼, 라세르나, 사굼, 페놀라 등을 착용하였다. 여자들은 스톨라, 팔라, 스트로피움 등을 입었는데 남녀 복식의 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공화정 중기 경부터로 그 이전에는 남녀 공동으로 이름만 다를 뿐 형태는 같았다. 머리형태에서 남자는 대부분 곱슬거리는 짧은 머

19) 정홍숙, 전게서, 97.

〈표 3〉 주요 남신(男神)들의 복식

이름	구분	의복의 종류	머리형태	상징물 및 장신구	신발
유피테르		토가	짧은 곱슬머리, 월계관	수염, 번개모양의 장신구	맨발
아폴로		튜닉, 테베나	짧은 머리를 땅아서 늘어뜨린 머리, 짧은 곱슬머리	.	맨발
메르쿠리우스		팔루다멘툼	짧은 곱슬 머리	전령의 지팡이	맨발
큐피드		외투	짧은 곱슬머리, 페타소스	화살통	맨발
마르스		외투	짧은 곱슬머리, 투구	창, 방패, 깃털	맨발
야누스		.	꼬아서 말아올린 머리, 월계관	.	.
아에네이아스		튜니카, 외투	짧은 곱슬머리	창, 방패	맨발
페나테스		튜니카	짧은 곱슬 머리	현주접시, 빨잔	하이부츠
라르스		튜니카 라티클라비, 팔리움,	짧은 곱슬머리, 월계관	사슴모양의 술잔, 술단지, 현주접시	바스킨
실바누스		동물가죽의 형태	짧은 곱슬머리에 월계관	수염, 나뭇가지, 바스킨	샌달

〈표 4〉 주요 여신(女神)들의 복식

이름	구분	의복의 종류	머리형태	상징물 및 장신구	신발
미네르바		스톨라	둥글게 말아 쌓아 올리고 헤어밴드 사용	홍갑	맨발
베누스		튜니카, 팔라	곱슬거리는 머리를 뒤로 늘어뜨린 스타일, 땅아올린 머리에 헤어밴드	목걸이, 팔찌, 발찌	맨발
디아나		스톨라, 팔라	앞가리마를 타서 길게 곱슬머리를 내려뜨리거나, 올린 형태의 시봉스타일	활, 화살	맨발
플로라		스톨라, 팔라	땅아올린 머리에 헤어밴드	꽃, 팔찌	맨발
베스타		스톨라, 팔라	롤(roll)을 쌓은 머리에 헤어밴드	베일, 피블라	.

리의 단순한 형태나 머리술이 적을 경우에는 가발을 쓰기도 하였고 제정시대에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성직자들은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길렀다. 여자들은 시대에 따라 단순한 형에서 복잡한 형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공화정 시대에는 앞가리마를 타고 양쪽 머리를 곱슬거리게 늘어뜨리거나 머리 전체를 짧게 깎는 등 단순한 형이 주를 이루었고 여기에 리본, 화환, 금속세환, 장식망, 진주 등의 장식품으로 치장하기도 하였다. 장신구에서는 동양의 영향을 받은 무겁고 큰 목걸이와 팔찌, 반지, 귀걸이 등을 화려한 색과 많은 재료로 정교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특히 반지는 로마시대에 아주 특색있는 악세서리로 남녀 모두 사용했으며 금속제가 가장 기본적이었으며 금으로 밴드처럼 만들기도 하였다.

신발은 제정시대에는 신발로서 신분과 직업을 표

시하기도 하여 귀족은 그들의 복식중에서 신발이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는데 부츠, 샌들, 바스킨 등에서 노예의 맨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남신(男神)들의 복식은 일반인처럼 토가, 테베나, 팔루다멘툼, 외투, 튜니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계급에 따른 복식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장식 트리밍이나 색상 등은 라르스 신의 복식이외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머리형태는 초기의 에트루리아인의 영향을 받아 땅아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 짧은 곱슬 머리, 꼬아서 말아올린 머리, 월계관도 볼 수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의복에서 일반인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은 신의 모습을 머리형태나 관모를 통하여 나타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영역에 관계된 상징물 및 장신구로

는 수염, 전령의 지팡이, 번개모양의 장신구, 화살통, 창, 방패, 현주접시, 뿔잔 등으로 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여신(女神)들의 복식은 당시의 여자 복식과 비슷하였는데 튜니카에 스톨라, 팔라 등을 입은 형태로 인간의 얼굴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머리 형태에서도 앞가리마를 타서 곱슬거리는 머리를 길게 내리거나 땅아 말아 올려 헤어밴드로 장식하였고 또한 올린 형태의 시농스타일 등도 나타났다. 그리고 상징물 및 장신구로는 흉갑, 활, 화살, 꽃, 목걸이, 팔찌, 발찌, 베일 등으로 그들의 책임영역을 나타내는 장신구 등을 사용하였다.

신발에서는 남신(男神)들은 맨발에서 샌들, 바스킨, 부츠 형태도 나타났지만 여신(女神)들의 경우는 모두 맨발의 형태를 하고 있어 고대 로마의 남성중심 사회가 신(神)의 세계에도 반영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로마인들은 현세적인 자연을 숭배하여 정령의 힘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처럼,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도 자신들이 착용하는 복식을 착용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곡물이나 제물, 책임영역에 따른 상징물 등의 사용으로 인간과 신을 차별화시키며 가정이나 국가들의 연혁에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겠다.

IV. 결 론

정신적인 면보다는 형식이나 의식을 존중한 고대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은 종교관에서도 현세적인 자연 등을 숭배, 다신교를 추구하였고 전반적인 모든 생활에 신(神)을 접목시켰다. 그리하여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들의 종교관념과 신에 대한 경배심은 로마 신화속에서 일반 로마인들의 복식과 그들의 책임영역에 관계된 상징화된 장신구 등으로 로마 신(神)들의 복식이 표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남신(男神)들의 복식은 일반 로마인들의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여신(女神)들은 남신(男神)과는 달리 얼굴이 거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로마 당시의 유행한 여성복식을 기본으로 착용하였다.

2. 남신(神)들의 머리형태는 초기의 에트루리아인

의 영향을 받아 땅아서 길어 늘어뜨린 머리부터 다양한 관모형태도 볼 수 있었으며 여신(女神)들의 머리도 곱슬거리는 머리에서부터 땅아 말아 올린 시농스타일 등이 나타났다.

3. 책임영역을 나타내는 상징물 및 장신구로는 남신(男神)들의 경우, 수염, 번개모양의 장신구, 전령의 지팡이, 화살통, 현주접시, 사슴뿔 술잔, 술단지, 창, 방패 등을 지니고 초인간적인 형상을 보여주었다. 여신(女神)들의 상징물로써는 흉갑, 전령의 지팡이, 꽃 등이 있었고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의 장신구도 일부 나타났다.

4. 신발의 경우, 남신(男神)들은 맨발에서부터 부츠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에는 거의 맨발이었지만 문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발의 종류도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신(女神)의 경우는 모두 맨발의 형태를 하고 있어 고대 로마의 남성중심 사회가 신(神)의 세계에도 반영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5. 고대 로마인의 복식과 신(神)의 복식을 분석·고찰한 결과, 남신(男神)들의 복식은 책임영역을 나타내는 장신구로 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인의 복식에서 나타난 트리밍이나 색상 등은 라르스신 이외의 복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신(神)의 복식은 초기에 고정화되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트리밍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여신(女神)들의 복식은 당시의 여자 복식과 비슷하였지만 색상이나 재료의 구별은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로마신화를 중심으로 한 신(神)의 복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과 성직자의 복식처럼 의복에서는 고대 로마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곡물이나 제물 그리고 책임영역에 맞는 상징물 등의 장신구를 사용으로 인간과 신을 차별화 시키고 로마인들이 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수호신으로 영원히 주위에서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은 표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정식, 세계문화사, 형설출판사, 1994.

- 김경옥, 서양복식사, 양서각, 1996.
- 박우찬, 서양사 미술사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 재원, 1998.
- 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89.
- 백영자·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1998.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88.
- 신영선, 복식의 정신문화, 교문사, 1998.
- 유송옥·이은영·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이순홍외 4인,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경춘사, 1992.
- 이정옥, 서양복식사, 학문사, 1979.
- 이정옥·최영옥·최경순, 서양복식사, 형설사, 1994.
- 이춘희, 서양피복사, 익문사, 1976.
- 임희완, 서양사의 이해, 박영사, 1997.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2.
- 정재영, 서양건축사, 지문당, 1994.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6.
-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90.
- 고대로마를 찾아서, 시공사, 1996.
- 로마제국, 타임 라이프북스, 1979.
- 세계미술대전집, Roman Art, 동아출판사, 1982.
- 세계의 대유적 6, 로마제국의 영광, 청담사, 1987.
- 폼페이 최후의 날, 시공사, 1995.
- 폼페이 최후의 날, 중앙일보사, 1998.
- 김명애, 서양복식에 나타난 직물에 관한 연구 -복식사 문헌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정길, 초기 기독교 복식과 비잔틴 복식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은미, 고대 그리스 신들의 복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주호,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신용백,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정치·사회적 요인고찰,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장윤기, 로마제국말기의 종교와 사회변화,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임상임·김현경, 종교복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1), 복식 제39호, 1998.
- 임상임·류보영,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일반 복식과 종교복식의 비교, 복식 50(8), 2000.
- 丹野郁·原田二郎, 이현숙 역, 서양복식사, 경춘사, 1982.
- Anderson J. Black,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1, 도서출판 자작아카데미, 1997.
- Ather Cotterell, A Dictionary of World Myt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Bigelow Marybell S,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0.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Harper & Row, Publishers, N.Y., 1965.
- Brown Landone, Greece & Rome vol. 1, Books, INC, N.Y., 1923.
-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 INC, New York, 1963.
- Charles William Fornara, The Nature of HISTORY In Ancient Greece & Rome, University of Californai Press, 1983.
- Edward Mcnall Burns 외 2인, Western civilizations, 박상익 역, 서양문명의 역사, 소나무, 1994.
-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1978.
- Indro Montanelli, 박광순 역, 별거벗은 로마사, 풀빛, 1990.
- Jane F. Gardner, Greek Myths, 이경희 역, 그리스신화, 범우사, 2000.
- Jane F. Gardner, Roman Myths, 이경희 역, 로마신화, 범우사, 1999.
- John F. Noss, 윤이흠 역, 세계종교사, 현음사, 1986.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 Skin, Houghton Mifflin Compan, 1981.
- Payne Blanche, History of Custome, N. Y: Harper & Row Publishers, 1965.
- Robert E. Lerner 외 2인, WESTERN CIVILIZATIONS, W·W Norton & Co, N.Y·London, 1987.
- Thomas Bulfinch, The Age of Fable, 최혁순 역, 그리스·로마신화, 범우사, 1980.
- Thomas H. Capenter, 김숙 역,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신화, 시공사, 1998.
- <http://yahoo.com>
- <http://my.netian.com>
- <http://hanmir.com>